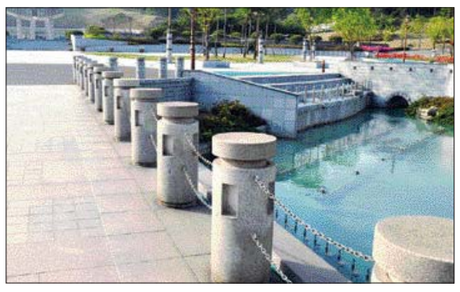
무장항쟁군상


석교와 명당수

5·18묘지 조형물에 담긴 의미는?

추모탑-민주주의 완성 위한 '씨앗' 품어
석교-이승·저승 연결…아래 명당수 흘러
12신상 봉수대-시작(子)과 끝(亥) 없어
무장항쟁군상-총을 든 시민군들 형상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곳곳에는 오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5·18 민중항쟁 추모탑'을 비롯해 '석교'와 '명당수', 참배광장의 '12신상 봉수대'와 '무장항쟁군상' '대동세상군상' 등이 있다. 이중 조각작품인 추모탑·무장항쟁군상·대동세상군상 등 3개 작품은 광주·전남지역 8인의 조각가들로 이뤄진 '5월조각회(회장 문기언)'가 설치했다.

국립묘지 정문 격인 '민주의 문'을 지나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돌다리가 있으며, 아래에는 명당자리에 흐르는 물이라 해서 명당수라 불리는 3m 깊이의 연못이 있다.

돌다리를 지나면 민주광장 대리석 바닥에 5개의 원이 그려져 있고 오월동산에는 18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는 5·18을 상징한다. 계단 양 옆으로는 소나무(왼쪽 12·오른쪽 10그루)가 심어졌는데, 이는 1년 12달 동안 10일간의 5·18항쟁을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5월 영령을 받드는 형상인 추념문을 지나면 12간지 동물이 그려진 2.4m의 봉수대가 참배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12간지 신상 중 10개의 신상만이 있는데, 이는 '5·18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의미와 10일간의 항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12간지의 시작·끝인 쥐(子)· 돼지(亥) 신상을 두지 않은 탓이다.

이어 40m 높이의 추모탑은 두 개의 대칭되는 사각기둥과 손으로 씨앗모양의 조형물을 감싸쥔 형태의 탑신으로 돼 있다. 이는 5·18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씨앗임을 뜻한다. 탑신은 전통 석조물인 당간지주를 본뜬 것이다.

추모탑을 지나면 양 옆으로 청동조각품이 있는데, 80년 5월 불법·불의에 저항해 총을 들고 항쟁에 나섰던 시민군을 형상화한 무장항쟁군상과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며 질서와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묘사한 대동세상 군상이다.

추모탑

국립 5·18민주묘지 김명한 관리소장은 "묘지에 조성된 나무나 조형물은 대부분 평화와 소통을 상징하며 숫자 5와 18, 10의 숫자로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5·18을 쉽게 이해하고 잊지 않도록 상징 조형물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모든 학교에 5·18 교과서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지역 모든 학교에 5·18 인정교과서를 확대 보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공교육에서의 5·18 교육 확산 및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그동안 10여개 학교에 보급된 5·18 인정 교과서를 초·중·고 300여곳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책 구입비 8200여만원을 확보했으며 5·18 기념일에 앞서 5·18기념재단을 통해 모두 구입하도록 했다. 초등과 중·고등학교용 2권으로 편찬된 5·18 교과서는 5·18 기념재단이 제작 실무를 맡고 지역 초·중등 교사 11명이 집필에 참여, 3년만인 지난해 1월 발간됐다.

지난해 시범학교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급된 5·18 교과서는 현재 금호초교와 광주자연과학고 등 10여곳에서 배우고 있으나 보급된 수량은 6000여권에 그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폰서 의혹' 평검사만 조사

정씨 징역 2년 선고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은 4일 이틀째 현직 검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의혹에 거명된 검사 수 명을 불러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주장대로 술접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인사들은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말 정씨를 두차례 불러 25년간의 접대내역 중 최근 있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당시 참석자와 접대상황 등의 구체적 진술을 받은 후 그가 언급한 검사들을 사무실로 부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조사단은 정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박지검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과 검사들과의 통화내역 등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과 7400만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진·보살행으로 사바세계를 정토로"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21일)을 맞아 조계종과 천태종의 총무원장이 나란히 봉축사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4일 봉축사에서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如一)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날"이라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설명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르지 않음을 세상에 알리셨다. 개인과 개인, 세상과 세상, 우주와 우주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에 모두는 씨줄과 날줄로 연결된 하나의 우주"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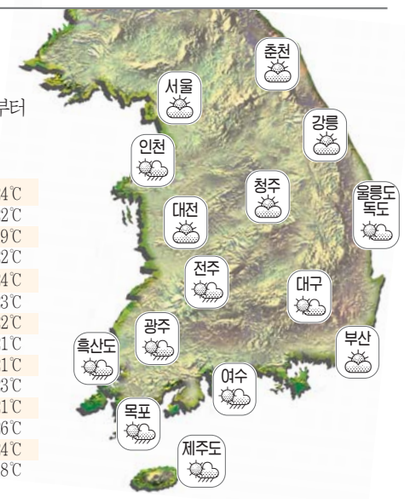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5시 38분 해짐 19시 21분 달뜸 00시 38분 달짐 11시 06분

놀러가기 좋은날

낮엔 구름 많다가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광 주	밤늦게비	17/24℃
목 포	밤늦게비	16/22℃
여 수	밤늦게비	15/19℃
완 도	밤늦게비	17/22℃
구 례	밤늦게비	15/24℃
해 남	밤늦게비	18/23℃
장 흥	밤늦게비	16/22℃
고 흥	밤늦게비	14/21℃
순 천	밤늦게비	15/21℃
영 광	밤늦게비	16/23℃
진 도	밤늦게비	18/21℃
전 주	밤늦게비	16/26℃
남 원	밤늦게비	13/24℃
흑산도	밤늦게비	13/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먼바다	남동~남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5~2.5m
먼바다	남동~남	2.0~3.0m

	밀물	썰물
목포	06:38 18:27	12:22 23:59
여수	01:22 13:23	07:53 19: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날 씨						
최저/최고	17/21	10/23	9/25	11/24	13/20	10/22

"덥다, 더워…"

어린이날 초여름 날씨…어제 순천 29.1도

광주·전남지역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까지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5~20㎜의 비가 내리고, 남해안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4일 광주·전남지역은 순천이 섭씨 29.1도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27.7도, 고흥 26.4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표면이 뜨거워져 기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